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 및 언어입력과 영·유아의 언어발달과의 관계: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비교†

Relation among Mother's Interaction Behavior, Mother's Language Input and Children's MLU: A Comparison between Multicultural- and Korean-Families

박혜원*·이국희·조증열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Park, Hyewon·Lee, Kukhee·Cho, Jeung-Ryeul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Dept. of Psychology, Kyungnam University

Abstract

Maternal interaction behavior, language input and children's language of 34 multicultural familie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ordinary families. MLU's of multicultural mothers and their children were shorter than those of ordinary Korean mothers and children. Positive maternal interaction behaviors of multicultural mother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ordinary mothers. Correlational analyses revealed tha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maternal interaction behaviors, mother's MLU and children' MLU in multicultural families. However, there were no such correlations in ordinary families. Findings suggest language education and support for multicultural mothers be an effective policy for their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Keywords: maternal interaction behavior, language input, young children, spontaneous utterance, multicultural families

I. 서론

1990년대 인력부족으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유입과 농촌에서 발생한 남녀 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주여성의 급격한 증가는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닌 다인종다문화 시대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 5월 외국계주민의 수는 1,139,283명으로,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2.3% 수준에 해당한다고 한다(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0).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외국인의 비율은 더욱 늘어나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5%, 그리고 2050년에는 9.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계청의 2010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혼인 건수 325,104건 중 국제결혼의 비율은 34,235(10.5%)건이고 그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26,274건으로 전체 국제결혼인구의 76.7%를 차지하고 있다(The Statistics Korea, 2010). 이와 같이 외국 인력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 세계화에 따른 가치관 변화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본 논문은 2010년도 한국연구재단의 SSK 사업(NRF-2010-330-B00299)지원에 의한 연구임.

* Corresponding Author: Park, Hyewon

Tel: 052-259-2367

Email: hyewonc@ulsan.ac.kr

다문화가정 증가와 함께 다문화 가정의 아동 또한 증가하고 있어 현재 다문화가정 아동수는 121,935명이며, 이중 만 3세까지 영·유아의 수는 54,944명으로 다문화가정 전체 아동의 약 45.06%를 차지하고 있다(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0). 최근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문제나 기타 행동특성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언어발달이 지체되고 있다고 보고된다(An, 2007; Cho, 2011; Choi, 2006; Choi & Hwang 2009; Hwang, 2010; Hwang, 2010; Hwang, Jeong, 2008; Kim, & Lee, 2010; Lee, & Park, 2011; Lee, Shin, Kim, & Kim, 2008; Oh, Kim, & Kim, 2009; Pae, Kwon, Jin, Jun, & Kwak, 2010; Park, 2007; Park, 2009; Park, 2009).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조음 및 음운인식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음운인식능력에 있어서 비교적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고하였다(Ahn, & Shin, 2008; Kang, Hwang, 2010; Shin, & Ahn, 2008; Yang, & Hwang, 2009; Yoo, 2008; Yoo, Kim, Kim, & Shin, 2008). 또한 어휘발달에 있어서 지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2011; Yang, 2009).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이 지체되는 이유의 하나는 언어입력의 문제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적고 입국후에도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기회가 부족하다. 특히 한국어는 한 개 이상의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단어를 구성하며,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가 결합하여 어절을 구성한다. 즉 한국어는 많은 문법형태소를 내포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제 2언어 학습자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한국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습득하여야 하므로 언어획득이 어렵고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여 잘못 습득된 언어표현이 많으나 이러한 표현들을 쉽게 고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문장오류가 많고 어휘력이 부족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대충의 의미만을 전달한다(Kim, 2007). 배현대(2010)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의사소통이며, 한국에 온지 6년 이상이 된 어머니들의 31.3%가 한국어 교육을 바라고 있다고 하였다.

영유아기는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과 기술을 획득하는 결정적인 시기로서, 영아기의 경험은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등의 발달에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후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Chung, Jung, Kim, Heo, & Hong, 2010). 특히,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언어와 상호작용의 질은 영유아기 학습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Hart & Resley, 1992; Lee, Lee, & Chang, 2004; Park, 1996; Senechal, Cornell, & Broda, 1995; Snow, Ferguson, 1977).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경우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한국어수준이 낮고, 영유아와 충분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며 이들 가정의 영유아의 언어발달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Lee, 2009; Lee, 2011; Park, 2006; Park, 2010).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및 일반가정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과 어머니의 언어능력 그리고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비교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언어입력과 아동의 언어발달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놀이 상황에서 자발발화를 녹화하였다.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자발발화샘플을 통한 언어분석인데, 특히 평균발화길이(MLU-m) 분석은 영유아의 표현언어 발달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Jeong, 2000; Kim, 1997; 2002; Rondal, Ghiotto, Bredart & Bachelet, 1987). 본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고 언어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및 일반가정 영유아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의 특성과 평균길이에는 차이가 있는가?
2. 다문화 및 일반가정 어머니와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의 특성과 평균길이에는 차이가 있는가?
3. 다문화 및 일반가정 어머니와 영유아의 주요 변인들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3-1.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영유아의 주요 변인들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3-2. 일반가정 어머니와 영유아의 주요 변인들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방 법

1. 연구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 가정 만1세~3세 영·유아 34명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아동 32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시기의 영유아는 두 단어 이상의 문장을 구사하면서 어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어머니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므로 어휘 발달과 어머니-영아 간 상호작용을 살펴보기에 적절하다.

2. 도구

1) 자발발화 특성 분석 도구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언어 입력 특성 및 아동의 언어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를 분석하고 또한 평균발화길이를 산출하였다. 자발발화에 나타난 형태소 분석을 위해 Kang(2002)의 자연언어 문장 분석용 형태소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언어의 가장 최소 단위로 정의되며 문법형태소는 형태소가 가지는 의미특성 관점에 따라 분류된 형태소 유형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형태소가 문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입장에서 용어를 문법형태소라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Kang(2002)의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에 사용된 형태소 분석을 위한 품사체계로 분석기에 의해 분리된 형태소들을 문법적 기능에 따라 구분하였다. 여기서도 이에 따라 N(체언), Z(관형사, 부사), V(용언), W(보조용언), J(조사), E(어말어미), C(서술격조사), T(용언접미사), F(선어말어미), S(체언접미사)를 중심으로 어머니와 영·유아의 자발적 발화에 나타난 형태소를 분석하여 사용양상을 분석하였다.

평균발화길이는 형태소에 의한 평균발화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 in morphemes; MLU-m)로 Kang(2002)의 형태소 분석기로 분석하여 나온 형태소 수의 합을 총 발화 수로 나누었다.

평균발화길이(MLU-m) = 각 발화 형태소수의 합 / 총 발화 수

2) 어머니 상호작용행동 측정 도구

어머니 상호작용행동의 평정을 위해 Mahoney(1999)가 개발한 어머니 상호작용행동평정 척도(Maternal Behavior Rating Scale: MBRS)를 Kim과 Mahoney(2009)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한국판 어머니 상호작용행동 평가척도(Korean Maternal Behavior Rating Scale: K-MBRS)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어머니 상호작용행동 평가척도는 일상에서 15분 정도의 놀이감(책, 소꿉놀이, 블록 등)을 사용하여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는 어머니의 행동 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평정척도이다. 반응적 요인(민감성, 반응성, 수용성, 즐거움, 온정성, 언어적 칭찬), 효율적 요인(효율성, 표현성, 독창성, 보조), 그리고 지시적 요인(성취지향성, 지시성)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지시적 요인점수를 역코딩하여 긍정적 상호작용행동 총점을 산출하였다. 각 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Table 1>과 같다.

3. 절차

1) 자발발화 수집, 전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영·유아가 15분 정도의 놀이상황에서 나타난 발화를 수집하였는데, 표본의 크기는 자발발화에 나타난 총 발화를 기준으로 하였다. 자발발화 자료는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와 영·유아의 놀이장면을 아동의 기관이나 가정에서 수집한 후 1-2일 이내에 전사하였다.

발화분석을 위해 다문화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사용하는 연구원이 1차 전사한 자료를 한국어

<Table 1> Contents of Subfactors of Maternal Interaction Behaviors and Cronbach's α

Subcategories	# of items	Contents	Cronbach's α
Maternal Interaction Behaviors	Reactive	Sensitivity, Responsivity, Acceptance, Pleasure, Affect, Verbal praise	.88
	Effective	Effectivity, Expressivity, Uniqueness, Assistance	.83
	Directive	Achievement orientation, Directiveness	.82

사용 대학원생이 수정하여 전사하였다. 한국어의 형태소 분석은 어절을 구성하는 형태소들을 분리한 후에, 형태론적 변형이 일어난 형태소의 원형을 복구하고 형태소 사전과 분석 규칙에 의해 옳은 분석 후보를 선택하는 작업으로 진행하였다. 최종 전사가 정리된 발화자료는 Kang(2002)의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형태소과 발화수를 산출하였다. 선행연구(Kang, 2002)에 따라 형태소는 N(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의존명사), Z(부사, 관형사: 새(옷) 등), V(용언: 동사, 형용사), W(보조용언: -싶다 등), J(조사), E(어말어미: -하여 등), C(서술격조사), T(용언접미사: -스럽다 등), F(선어말어미: -되 등), S(체언접미사: 들)로 구분하였다.

문법형태소 분석 예시는 <Table 2>와 같다. ‘내가 씻을게’의 문장의 형태소 수는 4, ‘나’는 N(체언), ‘가’는 J(조사), ‘씻’은 V(용언), ‘을게’는 E(어말어미)로 구분된다. 모든 피험자의 자발발화는 문장별로 아래와 같이 분석된 후 각 수치의 합을 총발화 문장수로 나누어 MLU와 형태소별 평균을 산출하게 된다.

2) 어머니 상호작용행동 분석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은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연구자와 평가 훈련을 충분히 받은 부검사자한명(이동학 석사과정)에 의해 수집되고 평정되었다. 사전에 협조와 동의를 구한 어린이집과 가정을 방문하여 어머니가 영·유아와 15분 정도 놀이상황에서 보인 행동을 한국판 어머니 상호작용행동 평가척도(Korean Maternal Behavior Rating Scale: K-MBRS)에 따라 평정하였다. 본 연구 자료의 23%에 해당하는 15개의 자료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어머니 상호작용행동에 대한 평가자간 일치도는 .92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처리하였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에 따른 각 변인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분산분석(ANCOVA)과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집단의 어머니와 영·유아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아의 변인에 유의한 상관을 보인 월령을 통제한 편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다문화 및 일반가정 영·유아의 자발발화 특성비교

다문화 및 일반가정에 따른 영·유아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문법형태소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두 집단의 영·유아 자발발화에서 나타난 형태소 N(체언)은 다문화가정 .96($SD=.22$), 일반가정 .87($SD=.19$)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이 높게 나타났다. 문법형태소 Z(부사, 관형사)에서는 다문화가정 .21($SD=.14$), 일반가정 .27($SD=.13$)로 나타나 일반가정의 영·유아들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문법형태소 V(용언)는 다문화가정 .35($SD=.28$), 일반가정 .42($SD=.18$)로 집단 간 V(용언)의 차이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18, p < .05$). 영·유아의 문법형태소 W(보조용언)는 다문화가정 .00($SD=.00$), 일반가정 .01($SD=.02$)로 일반가정이 유의하게 높았으며($F=4.51, p < .05$), 문법형태소 J(조사)에서도 다문화가정 .13($SD=.12$), 일반가정 .21($SD=.12$)로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2.43, p < .01$). 문법형태소 E(어말어미)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은 .38($SD=.34$)로 나타났고 일반가정은 .48($SD=.21$)로 나타나 E(어말어미)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7.95, p < .01$). 두 집단 영·유아의 자발발화에

<Table 2> Example of utterance analysis in terms of grammatical morphemes

Sentence	Length of Utterance	N	Z	V	W	J	E	C	T	F	S
내가 씻을게	4	1		1		1	1				

서 나타난 문법형태소 C(서술격조사)는 다문화가정 .02(*SD*=.04), 일반가정 .03(*SD*=.04)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문법형태소 T(용언접미사)에서도 다문화가정의 경우 .01(*SD*=.02)로 나타났고 일반가정은 .02(*SD*=.02)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문법형태소 F(선어말어미)의 경우, 다문화가정은 .03(*SD*=.04)으로, 일반가정은 .06(*SD*=.05)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0.84, p < .01$). 문법형태소 S(체언접미사)에서는 다문화가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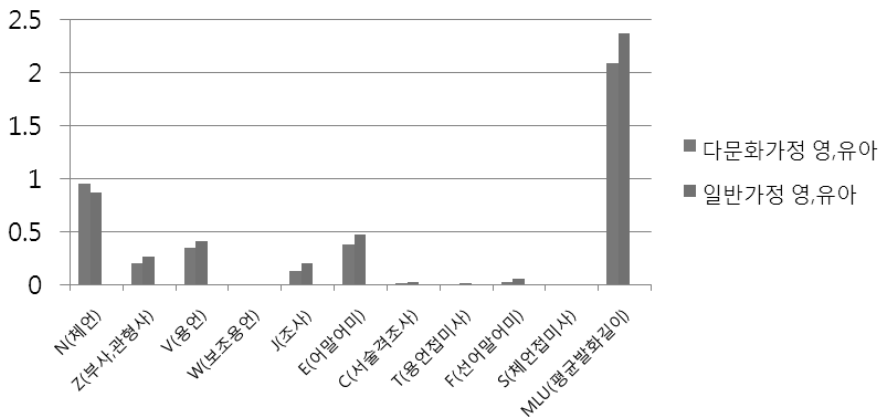
.00(*SD*=.00), 일반가정이 .01(*SD*=.01)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6.49, p < .05$).

영·유아의 월령을 통제시킨 후 다문화 및 일반가정 간의 영·유아 평균발화길이를 비교한 결과,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평균 2.09(*SD*=.93)로 나타났고, 일반가정 영·유아는 평균 2.37(*SD*=.66)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일반가정 영·유아의 평균발화길이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평균발화길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01, p < .01$). 다

<Table 3> Grammatical morphemes and MLU's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 Ordinary families *N* = 66

	Multicultural Families(<i>n</i> =34)	Ordinary Families (<i>n</i> =32)	<i>F</i>
	<i>M</i> (<i>SD</i>)	<i>M</i> (<i>SD</i>)	
N(noun)	.96(.22)	.87(.19)	2.74
Z(pre-noun, adverb)	.21(.14)	.27(.13)	3.59
V(a declinable word, Verb)	.35(.28)	.42(.18)	5.18*
W(adjective for a declinable word)	.00(.00)	.01(.02)	4.51*
J(particle)	.13(.12)	.21(.12)	12.43**
E(endings)	.38(.31)	.48(.21)	7.95**
C(particle endings)	.02(.04)	.03(.04)	3.17
T(suffix for a declinable word)	.01(.02)	.02(.02)	3.58
F(suffix before endings)	.03(.04)	.06(.05)	10.84**
S(noun-postposition)	.00(.00)	.01(.01)	6.49*
MLU	2.09(.93)	2.37(.66)	8.01***

* $p < .05$, ** $p < .01$, *** $p < .001$



[Figure 1] Grammatical morphemes and MLU's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 Ordinary families

문화 및 일반가정 어머니 상호작용행동을 살펴본 결과, <Table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호작용행동은 다문화 가정 3.09($SD=.37$), 일반가정 3.27($SD=.36$)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03, p < .05$).

2. 다문화 및 일반가정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 및 자발발화특성 비교

다문화 및 일반가정 어머니 상호작용행동을 살펴본 결과, <Table 4>에서 제시한 바와 어머니의 반응적 행동은 다문화가정 3.37($SD=.76$), 일반가정이 3.60($SD=.43$)으로 일반가정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효율적 행동은 다문화가정 2.94($SD=.67$), 일반가정 3.51($SD=.62$)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56, p < .01$). 지시적 행동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의 경우 2.94($SD=.88$), 일반가정의 경우 2.69($SD=.54$)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 상호작용행동 총점은 다문화가정 3.09($SD=.37$), 일반가정 3.27($SD=.36$)로 집단에 따른 어머니 상호작용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03, p < .05$).

다문화 및 일반가정에 따른 어머니의 문법형태소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두 집단의 어머니 자발발화에서 나타난 형태소 N(체언)은 다문화가정

<Table 4> Interaction behavior Scores in Mothers from Multicultural & Ordinary families

$N = 66$

	<i>Multicultural Families (n=34)</i>		<i>Ordinary families (n=32)</i>		<i>t</i>
	<i>M(SD)</i>		<i>M(SD)</i>		
<i>Responsive</i>	3.37(.76)		3.60(.43)		-1.53
<i>Effective</i>	2.94(.67)		3.51(.62)		-3.56**
<i>Directive</i>	2.94(.88)		2.69(.54)		1.43
<i>Total interaction behavior Scores</i>	3.09(.37)		3.27(.36)		-2.03*

* $p < .05$ ** $p < .01$

<Table 5> Grammatical morphemes and MLU's in Mothers from Multicultural & Ordinary families

$N = 66$

	<i>Multicultural families (n=34)</i>		<i>Ordinary families (n=32)</i>		<i>t</i>
	<i>M(SD)</i>		<i>M(SD)</i>		
<i>Grammatical morphemes</i>	N(noun)	1.06(.20)	1.29(.26)		-4.13***
	Z(pre-noun, adverb)	.48(.14)	.55(.15)		-1.98
	V(a declinable word, Verb)	.77(.24)	.98(.16)		-4.23***
	W(adjective for a declinable word)	.00(.01)	.01(.01)		-3.85***
	J(particle)	.29(.14)	.56(.15)		-7.79***
	E(endings)	.83(.24)	1.11(.16)		-5.67***
	C(particle endings)	.04(.05)	.07(.04)		-3.28**
	T(suffix for a declinable word)	.02(.02)	.05(.02)		-5.73***
	F(suffix before endings)	.06(.04)	.11(.04)		-5.54***
	S(noun-postposition)	.00(.00)	.02(.02)		-5.41***
	MLU	3.54(.69)	4.77(.60)		-7.68***

** $p < .01$ *** $p < .001$

1.06($SD=.20$), 일반가정 1.29($SD=.26$)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13, p < .001$). 문법형태소 Z(부사, 관형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은 .48($SD=.14$)로 나타났고, 일반가정은 .55($SD=.1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일반가정의 어머니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법형태소 V(용언)에서는 다문화가정 .77($SD=.24$), 일반가정 .98($SD=.16$)로 집단 간 V(용언)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t=4.23, p < .001$). 어머니의 자발발화에서 나타난 문법형태소 W(보조용언)은 다문화가정 .00($SD=.01$), 일반가정 .01($SD=.01$)로 일반가정이 유의하게 높았다($t=-3.85, p < .001$). 문법형태소 J(조사)에서도 다문화가정 .29($SD=.14$), 일반가정 .56($SD=.15$)으로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7.79, p < .001$). 문법형태소 E(어말어미)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은 .83($SD=.24$)으로 나타났고 일반가정은 1.11($SD=.16$)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67, p < .001$). 두 집단 어머니의 자발발화에서 나타난 문법형태소 C(서술격조사)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04($SD=.05$), 일반가정의 경우 .07($SD=.04$)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28, p < .01$). 문법형태소 T(용언접미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02($SD=.02$)로 나타났고 일반가정은 .05($SD=.02$)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t=-5.73, p < .001$). 문법형태소 F(선어말어미)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은 .06($SD=.04$)으로, 일반가정은 .11($SD=.04$)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54, p$

$< .001$). 문법형태소 S(체언접미사)에서는 다문화가정이 .00($SD=.00$), 일반가정이 .02($SD=.02$)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5.41, p < .001$).

다문화 및 일반가정 어머니의 평균발화길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평균 3.54($SD=.69$), 일반가정 어머니는 평균 4.77($SD=.60$)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7.68, p < .001$).

3.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영·유아의 상호작용행동 및 평균발화길이 간의 상관관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과 평균발화길이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영·유아의 월령을 통제한 편상관 관계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다문화가정 어머니 상호작용행동은 어머니 평균발화길이($r=.45, p < .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 평균발화길이는 영·유아평균발화길이($r=.47, p < .01$)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발화길이와 길어질수록 영·유아의 발화길이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어머니와 영·유아의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영·유아의 월령을 통제한 편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일반가정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과 어머니의 평균발화길이 간에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영·유아의 평균발화길이와도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interactive behaviors and MLU's in Multicultural families

$N = 34$

	Responsive	Effective	Directive	Total interactive behavior	Maternal MLU's	Children's MLU's
Effective	.84***					
Directive	-.52**	-.65***				
Total interactive behavior	.80***	.68***	.03			
Maternal MLU's	.47**	.31	-.08	.45**		
Children's MLU's	.30	.10	.06	.31	.47**	

** $p < .01$ *** $p < .001$

(Table 7) Correlations between interactive behaviors and MLU's in Ordinary families

N =32

	Responsive	Effective	Directive	Total interactive behavior	Maternal MLU's	Children's MLU's
Effective	.58**					
Directive	-.03	.01				
Total interactive behavior	.72***	.81***	.49**			
Maternal MLU's	-.14	.10	.03	.01		
Children's MLU's	.10	.11	-.20	-.00	-.16	

** $p < .01$ *** $p < .001$

IV. 논 의

저출산과 세계화의 흐름속에 한국내 외국인의 비중은 급증하고 있다. 표음문자로서 과학적인 특성이 우수한 한글과 한국어는 언어학적으로 매우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는 많은 문법형태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2언어 학습자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자신의 모국어와 다른 한국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부모의 한국어 사용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언어습득이 되지 않거나 지연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n, 2007; Cho, 2011; Choi, 2006; Choi, Hwang, 2009; Hwang, 2010; Hwang, 2010; Hwang, Jeong, 2008; Kang., Hwang, 2010; Kim, Lee, 2010; Lee, Park., 2011; Lee, Shin, Kim & Kim, 2008; Oh, Kim & Kim, Y, 2009; Pae, Kwon, Jin, Jun & Kwak, 2010; Park, 2007; Park, 2009; Park., 2009; Shin, Ahn, 2008; Yang, Hwang, 2009; Yoo, Kim, Kim & Shin, 2008). 구체적으로 조음 및 음운인식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음운인식능력에 있어서 비교적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놀이상황에서 다문화 및 일반가정 영·유아의 평균발화길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비해 일반가정 영·유아의 평균발화길이(2.37($SD=.66$))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9($SD=.93$)). 이는 이중언어환경 아동들이 단일언어환경 아동들에 비하여 언어발달이 지체되는 것으로 보고한

Park(2006)의 연구와 표현언어 발달의 평균발화길이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체가능성이 있다는 Jeong(2004), Ryu(200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가 지체되는 이유는 우선 어머니의 언어입력에서 찾아 볼 수 있다(Barnes, Gutfreund, Satterly, Well, 1983; Barrett, Harris, Chasin, 1991; Forrow, & Nelson, 1984; Hampson, & Nelson, 1993; Hoff, & Naigles 2002; Hoff-Ginsberg, 1991).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놀이상황에서의 평균발화길이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 3.54($SD=.69$), 일반가정 어머니 4.77($SD=.60$)로 나타나 일반가정 어머니들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Jeong(2008), Jung(2011), Woo, Juong, Choi, Lee와 Lee(2009)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자녀의 언어수준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지원 특히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자료의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를 통한 어머니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교육인적 자원부(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2007)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방향과 같이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 직접 적합한 언어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언어증진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

이중언어사용이 아동의 언어발달이나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초기 이중언어에 관한 연구(Pearl,

Lambert, 1962)와 달리 최근 부모가 서로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거나 캐나다의 동부나 중국 연변과 같이 사회적으로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아동은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적으로도 일찍부터 실행통제 능력 등의 인지발달이 높은 것이 보고되고 있다(Bialystok, 1992; 1999; Lee, Jeon & Park, 2003). 국내의 많은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지체나 기타 발달이 떨어짐을 보고하고 있는데(Ahn, Shin, 2008; Choi, Hwang, 2009; Hwang, 2010; Kang, Hwang, 2010; Kim, 2008; Kim, 2011; Kim, Lee, 2010; Lee, Park, 2011; Pae, Kwon, Jin, Jun, & Kwak, 2010; Park, 2007; Shin, Ahn, 2008; Song, 2009; Yang, Hwang, 2009; Yoo, 2008), 이는 이중언어사용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한국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한국어 습득이 되기 전에도 아동과의 상호작용시 모국어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등 아동을 위한 언어입력자체가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Bernstein, 1961).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으로 이들의 어머니의 모국어에 대한 위상 및 지위향상과 연결된다고 하겠다(Park, 2006).

언어입력외에도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이다(Mahoney & Powell, 1988; Mahoney, Spiker, & Boyce, 1996).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을 비교한 결과, 어머니 상호작용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12). 영아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전반적인 능력이 다문화가정 어머니보다 일반가정 어머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Jeon(2008)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이 일반가정보다 낮은 결과와 일치한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등은 일반 한국가정 어머니보다 크며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Park, 2011; Lee, 2010). 성인의 상호작용유형은 영아기부터 언어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Chang, Lee, Kwak & Sung, 2003; Jeon, 2010; Nam, 2009) 따라서 부족한 한국어수준과 낮은 경제수준, 한국 사회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해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루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위해 부모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 어머니-영·유아의 상호작용행동과 평균발화길이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전반적인 상호작용행동이 잘 이루어질수록 어머니의 평균발화길이가 길어졌다. 또한 어머니의 평균발화길이가 길어질수록 영·유아의 평균발화길이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일반가정 어머니-영·유아의 상호작용행동과 평균발화길이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가정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과 평균발화길이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영·유아의 평균발화길이와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의 하나는 일반가정 어머니 집단의 경우 다문화가정 어머니집단에 비해 발화길이는 매우 높고 변량이 비교적 적어(4.77($SD=$.60) vs. 3.54($SD=$.69)), 천정효과가 있어 상관이 나타나기 어려웠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동의 발화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에 비해 일반 집단의 경우 어머니와 유사하게 발화길이가 높고 변량이 적은 경향을 보였는데 따라서 어머니와 아동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비교적 언어환경이 우수한 일반가정에 비해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의 경우 언어발달에 환경의 영향이 더 큼을 시사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행동과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지원이 매우 효과적인 방안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수가 크지 않았다는 점은 그 결과의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다문화가정과 비교된 일반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의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본다면 두 집단 차이가 과장되었을 수 있다. 앞으로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유사한 집단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반복검증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어머니 상호작용행동, 언어입력, 영·유아, 자발발화, 다문화가정

REFERENCES

- Ahn, S., & Shin, Y.(2008). A Compare Study of Multi-Cultural Background Children's and Low-Income Children's Phonological Awareness Ability.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17(4), 81-94.
- An, W.(2007). A Study on The expressive skills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Bae, H.(2010). The Korean language instructional

- method which applies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al present condition for the feminine marriage emigration person and a cultural vocabula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Kyunggi University.
- Barnes, S. M. Gutfreund, D. Satterly, and C. Well. (1983). Characteristics of adult speech which predict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Language*, 10, 65-84.
- Barrett, M. D., Harris, M., & Chasin, J. (1991). Early lexical development and maternal speech: A comparison of children's initial and subsequent uses of words. *Journal of Child Language*, 18(1), 21-40
- Bernstein, B. A. (1961). Social class and linguistic development: A theory of social learning, In A. H. Halsey, J. Floud, & C. A. Anderson (Eds.), *Education,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 Bialystok, E.(1992). Attentional control in children's metalinguistic performance and measures of field independ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654- 665.
- Bialystok, E.(1999). Cognitive complexity and attentional control in the bilingual mind. *Child Development*, 70(3), 636-644.
- Chang, Y., Lee, K., Kwak, K., & Sung, H. (2003). Relations of maternal linguistic inputs to lexical development of Korean infa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6(4), 227-241
- Cho, A.(2011). Comparative Study of the Story Comprehension and Retelling Ability of You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Ordinary Families in Relation to Their Receptive Vocabulary Le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 Choi Hyun-Wook, Hwang Bo-Myung(2009). A Effects of Mother's Korean Abilities on their Children's Korean Abilities in Multi-cultural Family.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0(4), 315-329.
- Choi, E.(2012).The effects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lay beliefs on child's interactive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maternal interactive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 Choi, Y.(2006). Narrative Abilities of Korean Children with and International Marri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Myong Ji University.
- Chung, C., Jung, M., Kim, M., Heo, K. & Hong, H.(2010). A Structural Analysis on Related Variables Influencing Communication Competence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61, 23-44.
- Forrow, D., & Nelson, K. (1984). Environmental correlatio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language acquisition. *Child Language*, 11, 523-534.
- Hampson, J., & Nelson, K. (1993). The relation of maternal language to variation in rate and style of language acquisition. *Child Language*, 20, 313-342.
- Han, A. (2011). A study on the Aspects of Korean Language Acquisition for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 Hart, b., & Risley, T. (1992). American parenting language learning children: Persisting differences in family-child interactions observed in natural home environments. *Development Psychology*, 23, 1096-1105.
- Hoff, E. & Naigles L. (2002). How children use input to acquire a lexicon. *Child Development*, 73, 418-433.
- Hoff-Ginsberg, E. (1991). Mother-child conversation in different social classes and communicative settings. *Child Development*, 62, 782-796.
- Hwang, S. (2010). Early Expressive Vocabulary Development and Gender Difference of Children from Culturally Diverse Family Environments.

-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19(1), 193-209.
- Hwang, S.(2010). A comparison of the grammatical expressive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and normal family : on expository disco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 Hwang, S., & Jeong, O.(2008). A Study on Language Characteristics Correlation of the Children in Culturally Diverse Family Environments.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17(1), 81-102.
- Jeon, E.(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mother's cultural adaptation levels in multi-cultural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Jeon, Y.(2010). A Study on Characteristics in Mother-Child Interaction between Multicultural and Korean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 Jeong, B.(2000). A Study of Comparison among the Language Sampling Methods in the Grammatical Morphemes, Mean Length of Utterance, and Type-Token Ratio.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Jeong, E. (2004). Study on the Languag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ly Married Couple Living in an Agricultural Village.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13(3), 33-52
- Jeong, S.(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Korean ability and children language ability in multi-cultural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Jung, H.(2011). Relationship between home literacy environment for infant.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 Kang, K., Hwang, B.(2010). A Study on Language Abilities, Reading Abilities and Phonological Awareness Abilities for 5 Years Ol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General Families.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19(1), 143-158.
- Kang, S.(2002). Analyses and data search of Korean morpheme. Seoul: Hongreung Science Press.
- Kim, H., & Park, H.(2011). Multi-cultural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Interactive Behavior Analysis. Presented at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 Kim, J., Mahoney, J. (2009). The validation study of Parent-Child Interactive Rating Scale(K-MBRS & K-CBRS) in early childhood. Seoul: Bakhaksa.
- Kim, K.(2008). Receptive vocabulary ability and related variables i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 Kim, S.(2007). Korean education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Bilingual research*, 33, 423-446.
- Kim, W., & Lee, E.(2010). A Study on Languag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the Preschool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1(3), 209-226.
- Kim, Y.(2002). Assessment and treatment of children's linguistic disorder. Seoul: Hakjisa.
- Kim, Y.(2011). Language characteristics of pre-school children from low-income multicultural families and effect of parent training using CAI.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 Lee, H.(2011). Verbal Interaction Characteristics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Infant and Mo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 Lee, J. & Park, H.(2011). Analysis on mothers' Languag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pontaneous utterance and children's characteristics of spontaneous utterance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 Annual Conference.
- Lee, J.(2009). The Effects of Responsive Communication Strategies on Positive

- Parent-Child Interactions in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 Lee, J., Lee, K., & Chang, Y.(2004). The effect of maternal verbal interaction style on infants' early vocabulary development during picture book reading.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7(1), 131-146.
- Lee, K.(2010). The impact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y on parent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Development Chung-Ang University.
- Lee, K., Jeon, H., & Park, H.(2003). Cognitive Complexity and Control in the Cognitive Ability and Language Development of 3-to 5-Year-Old Korean-Chinese Bilingual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6), 1-14.
- Lee, S., Shin, J., Kim, H., & Kim, W.(2008). A Study on Expressive Vocabulary Ability i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Based on K-BNT-C.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17(3), 95-115.
- Mahoney, G. (1999) *The Maternal Behavior Rating Scale-Revised*. Available from the auther. Mandel school of Applied Social Sciences, 11235 Bellflower Rd., Cleveland, OH 44106-7164.
- Mahoney, G., & Powell, A. (1988). Modifying parent-child interaction: Enhancing the development of hanicapped childre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2(1), 82-96.
- Mahoney, G., Spiker, D., & Boyce, G. (1996). Clinical assessments of parent-child interaction: Are professionals ready to implement this practice?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6(1), 26-50.
- 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Security(2010). Census results on foreign residents. (2010).
-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2007).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upport program for low income group in early years an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 Nam, G.(2009). A Comparative Study on Toddler's Language Development by Teachers' Types of Interaction during Reading of Picture Boo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 Oh, S., Kim, Y., & Kim, Y. (2009). Preliminary Study on Language Characteristics and Related Family Factors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Special Education Research*, 8(1), 137-161.
- Pae, S., Kwon, E., Jin, Y., Jun, H., & Kwak, K.(2010). Narratives of Children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19(2), 53-72.
- Park, E.(2010). The research on maternal linguistic input and Korean language development phases of children from multic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 Park, H.(2006). The present and possibiliti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Focused on Asian Community schools. 7th Conference o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Proceeding, 60-75.
- Park, J.(2007). A Study on Languag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Bilingual Environment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cience Graduated School, Daegu University
- Park, M.(2009). Language development of Korean preschooler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zarene University
- Park, Y.(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literacy environment and children's language ability. Hanyang University.
- Pearl, E. & Lambert, W. (1962). The relation of bilingualism to intelligence. *Psycho-logical Monographs*, 76, (Whole No. 546), 1-23.
- Rondal. J. A. M Ghiotto, S. Bredart & J. Bachelier (1987). Age-relation, reliability and grammatical validity of measures of utterance length. *Journal of Child Language*, 14, 433-446.
- Ryu, Y. (2005). Expressive language development of 3

- and 4 year old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 naming ability and mean length of utter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Program in speech Pathology, Yonsei University
- Sang Hee Park(2009). A Longitudinal Study of Articulation Production of Children from Culturally Diverse Family Environments.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18(1), 89-97.
- Senechal, M., Cornell, E. H., & Broda, L. S. (1995). Age-related differences in the organization of parent-infant interactions during picture-book read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 317-337.
- Shin, S., & Ahn, S. (2008). A Study of Multi-Cultural Background Children's Phonological Awareness Development.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17(3), 37-53.
- Snow. C. E. & Ferguson. C. A. (1977). Talking to children: Language input and acquisition studies. *Language Learning*, 25, 297-308.
- Song, Y.(2009). Multi-cultural Children's Language Competence and Play-Interaction with Their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Inha University
- The Statistics Korea. (2010).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Woo, H., Juong, H., & Choi, N., Yi, S., & Lee, K.(2009). Mothers' Korean Language Ability and Preschoolers' Language Develop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3), 23-36
- Yang, S. (2009). Comparison of Language ability for Preschool Children of Multi-culture Family and Ordinary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Daebul University.
- Yang, S., & Hwang, B. (2009). Comparison of Language ability for Preschool Children of Multi-culture Family and Ordinary Family.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18(1), 37-57.
- Yoo, H.(2008). Articulation Ability and Phonological Process i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 Yoo, H., Kim, H., Kim, W., & Shin, J.(2008). Articulation Ability and Phonological Process i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Korean Journal of Speech Sciences*, 15(3), 133-144.

| 접수일 : 2012. 06. 07.
 | 수정완료일 : 2012. 06. 14.
 | 게재확정일 : 2012. 06. 15.